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4

충현의 만나

2008

가정예배 · 열왕기하 ·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4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열왕기하 ·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 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 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⑧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 아닌 거듭난 죄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은총을

거듭난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이제 우리는 이 은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행 9:36~43)이어야 합니다.

참 제자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행 4:13~14)

그렇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자랑이며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2008년 4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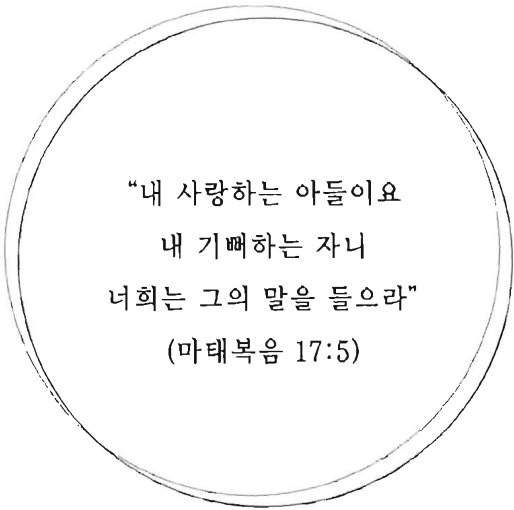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매일 성경묵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5)

땅을 되찾은 수벳 여인(1~6절), 아람의 격동기(7~15절), 아합의 집과 관련이 있는 유다 왕들의 역사(16~29절)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벳 여인이 땅을 되찾은 일은 우리가 우연하게 여기는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선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람의 격동기를 다룬 7~15절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패역하고 계속적으로 행악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다 왕들의 패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7대 왕인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며(18절) 그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유다 왕들의 패역함을 기록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1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36의 예언을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신실하신 이 언약과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 은총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왕하 8:19)

기도 제목 ①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끊임없는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아합 왕조의 비참한 최후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예후를 준비시키십니다. 예후의 등장은 엘리야의 예언(왕상 19:15~17) 속에 언급된 것으로 패역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입니다.(1~13절) 예후의 모반으로 요람이 살해되고 요람을 병문안 중이던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살해됩니다.(14~29절) 요람의 죽음에 나봇의 밭에서 일어난 사실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37절에는 우상숭배와 사악함으로 아합 왕가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이세벨이 살해됩니다. 창에서 내려 던져진 후 예후가 돌이켜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 시체를 찾았으나 이미 개의 먹이가 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무서운 심판예언(왕상 21:23)이 성취됩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피값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했던 이세벨의 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회개가 가장 우선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왕하 9:7)

기도 제목 ① 맡겨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합 자손들의 죽음(1~17절)과 바알 숭배자들의 죽음(18~28절)을 기록함으로써, 행악자들의 근원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예후의 반역과 혁명은 아합 왕가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16절)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30절) 예후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신실하였고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벤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고(28~29절)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31절)

만일 그가 참 신앙인이었다면 철저히 금송아지 숭배도 멸절시켜야 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에 관한 신앙을 가졌으나 참된 신앙은 소유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후를 의롭다 하시고 복주시어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의 왕조를 유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행에 대하여 잊지 않고 갚아 주십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후와 같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열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잊고 안일하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순종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자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왕하 10:17)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천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1절)하는 아달랴의 반역 와중에도 다윗 왕가의 대를 이을 요아스가 여인 여호세바에 의해 구출되고(1~3절) 아달랴 왕후의 유다 섭정기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권을 바로 세우는 장면(4~16절), 여호야다의 종교개혁(17~2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남유다의 왕족이 거의 진멸된 상태에서 7살 밖에 안 된 어린 요아스가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대하 23:16~21) 다윗의 왕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아달랴를 통해 다윗 왕가를 멸절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켜 버리려는 흥계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흥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속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항상 예비해 놓으십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등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언약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서 끊어 버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민 23:19) 제사장 여호야다는 바알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입니다.(18절) “철저히 우상을 깨뜨렸다”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가슴을 찢는 통회로 거듭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왕하 11:17)

기도 제목 ① 인생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7세에 왕이 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1~3절)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믿음의 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왕실과 성전의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17~18절) 결국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그를 반역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대하 24:17~26)

요아스가 암살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대하 24:20)고 간언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데 대한 징계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의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실패자로 전락해버린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요아스와 같이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여건에서도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도”(왕하 12:2)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뒤를 이은 요아스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13절)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므로 하나님은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들으시고 구원자(5절)를 주셔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6절)

14~25절은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과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22~25절) 요아스의 악행에도(11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을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며 자신의 말은 바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열심과 마지막까지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패역(6절)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리셔서 그들이 승리케 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23절)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공휼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왕하 13:23)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6개월간의 훈련을 받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22절) 아마샤는 등극 초기에는 정직한 왕이었지만 왕권이 점차 강화되고 나라가 평정되자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들을 치고 돌아올 때 가져온 신들을 의지하였으며(대하 25:14~15), 교만에 빠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대면하여 패하고(11~12절)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반역으로 인해 도피하다가 살해됩니다.(19절)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빌 2:6~7)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의 행적을 소개합니다.(23~29절) 북이스라엘은 41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으면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만큼 가장 번영한 시대였지만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24절) 죄악이 극심했음에도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26~27절)

아마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샤가 범한 실수와 교만은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으로 성령충만을 간구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왕하 14:26)

기도 제목 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선교훈련을 받아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악한 왕들의 통치행적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아사랴(1~7절)와 요담(32~38절)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8~12절), 살룸(13~16절), 므나헴(17~22절), 브가히야(23~26절) 그리고 베가(27~31절)가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사랴와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선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숭배의 온상인 산당을 제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반역으로 왕권을 탈취했고, 악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패역한 이방나라의 통치 행태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죄악 가운데 타락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16~19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에 대하여 성경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왕하 10:31, 13:6, 14:24, 15:9,18)라는 말씀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볼 때 여로보암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병행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늘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여로보암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과 패역함에도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참으시면서 변함없는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 15:18)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하스의 우상숭배(1~9절) 및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다윗 왕가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신에게 바치는 몰록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왕하 23:10) 이는 그가 당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3절) 또한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앗수르 제국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는 장차 앗수르가 남유다의 더 큰 적이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지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철저한 배교행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20절) 앗수르 군대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아하스는 감사의 표시로 친히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방문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10절) 그리고 그곳에서 본 우상의 제단을 모방하여 예루살렘에 새로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급하고, 새로운 산당을 건립하는 등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도리어 이방인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지극히 패역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롬 12:2)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며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이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 (왕하 16:2~3)

기도 제목 ①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수요성경공부와 충현전도대 훈련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패역의 길로 치닫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앗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1~23절) 북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불순종, 우상숭배, 선지자들의 경고 무시, 언약 파기,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13~15절)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14절) 불순종과 무지에만 빠지게 되면 정체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앗수르의 강제이주와 종교혼합정책이 나타나 있습니다.(20~33절) 앗수르는 사마리아에 이민족을 이주시켜 혼혈족을 형성하여 앗수르에 대항하는 세력의 근절을 꾀하였습니다. 이들이 곧 '사마리아인'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과 더불어 다양한 우상신을 섬기면서 결국 혼합종교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33절) 그 결과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남유대)인들 사이의 적대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마저 초래하였습니다.(요 4:9)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언제나 우상숭배를 좋아합니다.(롬 1:21~2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단지 이 땅의 축복만을 누리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정결한 믿음으로 사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왕하 17: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 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말씀합니다.(1~12절) 히스기야는 이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놋뱀을 부순 까닭은 비록 광야에서 놋뱀이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3:14~15) 당시에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선왕인 아하스가 취했던 친 앗수르정책을 과감히 청산하고 우상숭배를 배척했습니다.

남유다에 앗수르가 1차 침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3~16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약 8년 후에 남유다를 두 번 침략합니다. 이것은 당시 친 앗수르정책을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앗수르 왕 산헤립의 응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1차 침략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유약함과 불신앙적 처사로 인해 예루살렘은 극도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산헤립의 공물 요구량은 엄청나게 많았으며, 히스기야는 성전의 성물까지 바치게 됩니다.

앗수르의 2차 침입을 기록합니다.(17~37절) 항복을 요구하는 산헤립의 회유, 히스기야에 대한 모욕적 언사(22, 29~32절), 하나님에 대한 모독(30~35절)까지 있었으나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잠잠히 대처하며(36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차 침략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실패하였으나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는 환난 가운데 실패하지만 회복의 은혜를 입으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왕하 18:17)

기도 제목 ① 어떤 환난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을 주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항복을 요구하는 앓수르의 2차 침략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1~19절) 히스기야는 앓수르 왕 산헤립으로부터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방하는 편지를 받고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1~2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앓수르의 1차 침략 때의 타협적인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니다. 앓수르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20~37절) 히스기야에게 기도요청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앓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20절)하며, 앓수르와 산헤립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된 앓수르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며(22~25절) 다윗에게 영원토록 견고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앓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6절)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헤산할 힘이 없도다”(3절)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왕하 19:19)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일꾼들이 영혼구원의 열심으로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낮을 벽으로 향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1절)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음(2~3절)과, 그로 인한 회복(5~7절)의 영적 체험은 산헤립의 1차 침입 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유약함과 불신앙적 행동(18:14)을 버리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결정적 동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5절)라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유다 민족의 구원이 지도자의 자질이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다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있는 부와 명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공적을 선전하는 일에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12~15절)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왕하 20:13)

기도 제목 ① 십자가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우상숭배에 몰두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인도하는 므낫세와 아몬의 가증하고 악한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시도했던 종교개혁과 신앙 회복운동이 자취를 감추고 어두운 역사가 기록됩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악을 많이 행하였으며(6절),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습니다.(9,11절) 계속된 유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15절) 결국 유다 멸망이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습니다.(10~18절) 유다도 그들의 죄악으로 북왕국과 함께 멸망당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통치는 유다 역대의 불의한 왕들의 악한 행동과 우상숭배와 일치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9~25절) 이렇게 유다 왕국은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향하여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은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두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감시다. 순간순간마다 정결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꿈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왕하 21:11)

기도 제목 ①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② 새벽을 깨우며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1~2절) 성전을 수리합니다.(3~7절)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율법에 경고된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임을 깨닫고 통회하였습니다.(8~14절) 유다가 하나님의 공휼을 입을 수 있는지를 여선지자 홀다에게 묻습니다. 홀다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며 요시야는 그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15~20절)

요시야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돌이킨 것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말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요시야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회복이 바로 회개이며 개혁의 시작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서 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말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왕하 22:11)

기도 제목 ① 말씀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오랫동안 없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요시아의 모습입니다.(21~23절)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1~3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운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우상숭배 요소들을 예루살렘과 그 밖의 유다 성읍에서 도말시킴으로써 이 개혁에 대한 믿음의 실천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4~14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벧엘에 세운 제단과(15절)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까지 다 제거한 일은(19~20절)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유다를 넘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밝혀 줍니다. 요시아는 개혁의 남은 부분까지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어 지킵니다.(24~25절)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씀을 기초로 한 정결운동입니다. 거룩한 종교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뜻과 의미를 변질시켜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회복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탄식과 애통함으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이루고,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25)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헌신된 믿음을 주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유다가 바벨론의 1, 2차 침공을 당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전히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심판을 실현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제1차 바벨론 침공, 여호야김의 사적(1~7절), 그후 왕이 된 여호야킨을 포로로 잡아간(8~16절) 바벨론은 여호야킨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임명합니다.(17~20절) 그 역시 우상숭배 죄악을 되풀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 애굽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다시금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유다 말기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과 여호야킨과 시드기야 왕은 모두 악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정말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핑계대기 말고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줍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왕하 24:4)

기도 제목 ① 열방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무서운 심판이 유다 위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장면과 시드기야의 포로됨을 묘사함에 있어서 포위된 성내의 처참한 광경(3절)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모습(7절)을 통해 이제 점진적으로 성취되던 유다의 멸망이 바로 목전에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으며 성전의 물건들은 약탈당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참혹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곧 은혜의 길, 복음의 길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된 승리의 길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야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켜 주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27~30절)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약속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도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십이월 그 달 이십칠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왕하 25:27)

기도 제목 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3절) 거룩한 유다서는 당시 초대 교회의 가장 골칫거리 중의 하나였던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입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하며(4절) 거짓 교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가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5~16절)을 비유하여 이단자들의 심판이 필연적임을 논증합니다. 이단자들의 특징과 형벌에 관해 서술하며 그들에 대하여 경계(17~19절)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절대 미혹되지 말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20~21절)고 당부합니다.

성도란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1절)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소유한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요 14:27) 성도들의 영적 전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24~25절)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우리 몸 에 채우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 원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유 1:25)

기도 제목 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시고 영광스러워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눈을 뜨고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17절)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7~1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접하고는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습니다. 다니엘이나 이시야 선지자도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사 6:5 : 단 8:17) 이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마 14:27, 17:7)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를 맛보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영원의 세계를 맛보는 두려움이기애 더욱 맛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7절) 십자가 붙들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에베소교회의 행위와 수고, 신앙의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시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1~7절)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칭찬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을 사탄의 회당이라 하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하십니다.(8~11절)

버가모교회에 대하여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칭할 정도로 이교가 극심한 버가모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므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14~16절) 두아디라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상업 요충지로서 상거리는 신당에서, 이교의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서 행해졌기 때문에 조합의 회원이 되어야 했으며 조합의 수호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세상과 타협을 정당화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18~29절)

네 교회의 모습은 당시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오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느 교회의 모습입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를 기억하시며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계 2:2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데는 양모산업이 번창하여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이단의 꾀방과 박해, 유대인의 비방과 중상 등 외부적인 공격이 없었으며 부와 번영으로 부패와 사치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갈급함이 없이 살았다 하였으나 죽은 자 같은 사데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십니다.(1~6절) 빌라델비아교회는 믿음의 시련 중에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서머나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습니다.(7~13절) 실제로 주변 도시가 모두 회교화된 상황에서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물질적, 문화적으로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풍부한 물질적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해하여 영적 교만에 빠져 칭찬을 기대하지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16~17절)라고 하시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19절)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다투어 거대한 기업화에 여념이 없는 현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참으로 분명한 십자가 메시지를 가진 교회는 언제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과 이 세상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참된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불지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사양성부와 찬양대 원양성부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병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천국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8~11절은 하늘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사 모든 것의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중심으로부터 찬양을 드렸듯이 대속함을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배에서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8절) 이렇게 네 생물이 찬양을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10절) 여기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됨을 뜻합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기에 거룩한 순종이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모두 내어드리며 ‘거룩하시다’ 경배드릴 천국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순종과 거룩한 증거가 있기 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계 4:8)

기도 제목 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되며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모든 피조물에게 온전히 가리워졌음을 뜻합니다.(1절)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은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10절)입니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8~10절) 모든 천사들과 만물이 찬양을 드립니다.(11~14절) 십자가 상에서 승리의 죽음을 거두심으로 인봉한 두루마리를 열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펼칠 유일한 분 그리스도 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12절)에 대한 경배입니다.

5장에서는 '어린 양'이 5번 나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린 양이란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제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임을 아셨습니다. 그 령기에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사 53:7)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어린 양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을 만날 때의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와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갈보리로 가신 어린 양이 걸으신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계 5:1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1·1·1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장면입니다. 여섯개 인이 펼쳐지면서 종말론적 사건이 계시됩니다. 어떤 인간도 뗄 수 없는(5:3) 종말의 비밀을 어린 양 자신이 여심으로 어린 양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체이심을 나타냅니다. 여섯 인에 따라 계시되는 전쟁과 기근(1~8절), 죽음과 지진, 하늘의 징조(9~17절)와 같은 재앙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세의 징조들(마 24:1~35)과 아주 흡사합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흰 말은 세계적인 정복(1~2절),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붉은 말은 전쟁과 내란(3~4절), 셋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검은 말은 흉년과 가근(5~6절),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청황색 말은 배고픔과 죽음(7~8절),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고난과 순자들의 탄식(9~11절),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과 하늘의 징조(12~17절)가 있습니다. 이는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의 점진성을 상징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9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순교가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11절)는 말씀은 교회가 더 많은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뜻합니다.(롬 11:25)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적대한 자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과 복음을 위해 종말에 교회가 순교의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제 6:10)

기도 제목 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일곱째 인을 떼기에 앞서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6:17) 즉 환난의 날에 누가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14만 4천명의 성도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대환난 가운데도 배교치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명’(1~8절)과 ‘흰 옷 입은 무리’(9~14절)는 요한계시록에서 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14만 4천명이 상징수인가 아니면 문자적 수인가? 또한 14만 4천명과 흰 옷 입은 무리는 동일한 자들인가 서로 다른 자들인가?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성경전체를 볼 때 14만 4천명은 대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를 상징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를 어떤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신실한 성도로 보는 견해가 가장 무난합니다.(요 16:33)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며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9~10절)라고 고백합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14절)고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새 언약의 피’(눅 22:20)입니다. 흰 옷 입은 무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특권입니다.(15~17절)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구원에 참여하며,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악을 씻어 희게 해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7)

기도 제목 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 교육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청지기들로 훈련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일곱째 인을 떼심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팔 제
 양 역시 재앙의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땅에서 고난
 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지도록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 지는데(1절) 이는
 대환난 중에 꺾박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내려집니다. 첫째 나팔의 재
 앙으로 대환난 후 삼년 반 동안에 있을 생태계의 파괴를 묘사한 것입니다.(7
 절)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에 내려진 첫째
 재앙과 아주 흡사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피는 세계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냅니다.(8~9절) 셋째 나팔은 물에 대한 심판으로 불순종하고 거
 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음을 의미합니다.(10~11
 절) 넷째 나팔은 애굽에 대한 '흑암'의 재앙과 여섯째 인의 재앙과 흡사합니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듯이 이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불신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을 뜻합니다.(12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4절)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받는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도께 열납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선
 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영혼을 위한 기도,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계
 8: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② 학
 습 및 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연
 합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소개합니다. 일곱 인의 재앙은 인간 파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일곱 나팔의 재앙은 환경파괴와 인간파괴가 동시에 일어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자도 황충(3절), 네 천사(15절)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1/3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15절) 이런 심판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20~21절) 이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죄가 더해지고 완악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멸망이 아닌 회개와 구원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십니다.(4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최후의 부서운 환난 이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행동을 유보하시며, 아직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기 백성들에게 인침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계 7:3)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며 회개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계 9: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방관자 없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제앙 사이에 삽입된 일로 일곱째 나팔을 향하는 점진적 과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준비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1~7절)과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8~11절)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곧 완성되고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6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라는 의미로, 즉 회개할 시간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서,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하여(7절) 주님은 오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8~9절)는 말씀은 전도자의 선포와 회개사역을 이루라는 명령을 뜻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꿀같이 달고 기쁘지만 쓴 심판의 메시지(10절)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수록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실로 쓴 경험인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제시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진실로 믿으며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고 쓰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계 10:7)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복지관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전측량은 불신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증인의 예언(3~13절)은 말세에 고통당할 성도의 상황과 승리, 일곱째 나팔의 재앙(14~19절)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3절)은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로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숫대'로 일컬어집니다. 두 증인에 대한 견해는 모세와 엘리야 또는 베드로와 바울 등이라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이를 두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교회역사 전반에 걸쳐 예언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모든 예언자 또는 신실한 교회공동체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3절)을 입었다는 것은 겸손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은 재앙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이 나팔이 울리자 하늘로부터 장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라는 찬송을 합니다.(15,17~18절)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십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19절)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진 구원의 새 언약이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언약궤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 11:1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릴 은총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4월 구역교재 초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듭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죄인의 삶은 복음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며 동시에 유일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과 견디기 힘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아멘.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404	롬 10:11~15	무엇이 전도자의 사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0411	행 9:36~43	여제자 도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0418	행 4:13~14	종교인들의 연구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을 굳게 하자
0425	롬 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무엇이 전도자의 사명인가?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 본 문 | 로마서 10:11~15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깊은 소망에 대해 썼습니다.

롬 10:1 / 형제들아 _____ 와 _____ 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 로마서 10:1에서 느낄 수 있는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영혼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받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전도자들입니다.

※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어떻게 복음전도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복음전도자입니다. 복음전도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복음전도자들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마 28:19~20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영적 관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단기선교의 경험을 나누어 보신 뒤 선교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까운 이웃에게로 보내든지 혹은 세계 곳곳으로 보내든지 전도자의 발은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전도자의 발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롬 10:15 /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_____함과 같으니라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

복음전도자들은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롬 10:11~13 /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를 믿는 자는 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가 되사 그를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을 받으리라

대부분 교회들의 복음전도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도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의복, 음식, 의약품, 돈, 혹은 쉼 곳을 제공해 준다면 그들이 얻을 영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 복음이 무시되고 있는 선교의 현실과 다양한 선교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고전 4:1

바울은 교육이나 복지 또는 의료정책에 대해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이 전해야 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전 2:2 / 내가 너희 중에서 _____와 그가 _____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복음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마 5:16

벧전 2:9

전도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실제적인 경험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진정한 전도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말할 때 그들에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옛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를 갈며 경멸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 사도행전 2:37, 7:54 말씀을 읽은 뒤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복음전도자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오직 복음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복음전도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전 15:3~4

갈 6:14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전도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합시다.

| 간절한 기도 |

1. 복음전도자의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과 여제자 도르가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 찬 송 |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 본 문 | 사도행전 9:36~43

⁽³⁶⁾옴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³⁷⁾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⁴¹⁾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⁴²⁾온 옴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⁴³⁾베드로가 옴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성령강림 후 초대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 수는 수천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근방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늘어났습니다.

행 9:22

행 9:31

※ 초대 교회 부흥의 원동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십시오.

초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욥바에 사는 도르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녀는 부활을 체험한 몇 안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도르가는 제자이다

도르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행 9:36

행 9:39

도르가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선행과 구제가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녀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 제자에게 있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도르가가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르가처럼 우리도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마 5:16 / 이같이 너희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
☐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을 돌리게 하라

도르가는 신실한 일꾼이다

도르가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들에게 속옷과 겹옷을 만들어주었던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딤후 2:10 / 오직 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딤후 5:10 /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갔고, 이따금씩 행하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도르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히 10:24

도르가가 베푼 온정과 구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종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을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골 1:7 /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요

※ 도르가처럼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도르가는 부활했다

여제자이며 신실한 일꾼이었던 도르가는 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녀는 부활했습니다.

행 9:37~38

사람들은 죽은 도르가의 몸을 씻겼지만 장사지낼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와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행 9:39~40 / 베드로가 _____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_____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_____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_____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요 11:43~44

베드로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성도들은 그녀가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르가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 도르가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도르가는 신실한 제자로서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공활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활을 증거합니까?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까? 날마다 믿음을 실천하십니까? 단지 예배를 드리거나 편리할 때만 행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사 1:17

잠 19:17

우리는 영원한 죄인에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유한한 부활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된 은총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도르가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보혈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3. 구역원들이 삶으로 그리스도의 자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3과 종교인들의 연구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을 굳게 하자

| 찬 송 |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 본 문 | 사도행전 4:13~14

¹³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¹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구걸하고 있던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하면서 못 걷게 된 이 남자(행 3:2)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걸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행 4:4

이 사건은 종교관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종교관원들은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기로 했습니다.(4:3) 고위 종교관원들,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행 4:1~2

※ 종교관원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 교회 부흥의 주역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종교관원의 연구가 시작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종교인들의 연구가 시작되다

주요 종교인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견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일에 대해 심문하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 4:5~6

종교관원들은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질문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행 4:10~12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라다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뜻밖에 너무나 담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 4:13

※ 당시 베드로가 처한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만약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종교관원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에 내심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다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 4:13 /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_____
_____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들이 무식하다고 종교관원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처럼 설득력 있는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롬 11:33

고전 1:17

예수 그리스도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병든 영혼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종교인들의 연구결과

마침내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 4:13 /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_____

고전 5:4

종교관원들은 여전히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관원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행 4:16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

풍부한 학식과 연륜을 가진 종교관원들의 연구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1장 18~31절 말씀을 읽은 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식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순종과 실천이 있는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갈 2:20

마 16:24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을 굳게 합시다.

| 간절한 기도 |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소서

4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 찬 송 |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 본 문 | 로마서 1:16~17

¹⁶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¹⁷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현대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복음전도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요즘 대형 교회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보다 현재 교인수를 유지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전략 등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벧후 3:3

유 1:18

오직 믿음으로 복음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진실로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복음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고전 15:3~4 / 내가 _____ 이는 성경대로
_____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행 9:22

한 때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보혈로 거듭난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 바울이 세운 인생의 목표(고전 2:2)와 나의 목표를 비교해 보십시오. 또 한 자신이 진실로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행 16:23~25

행 16:31

바울에게 사람의 지위와 신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기뻐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롬 1:16 / _____ 이 복음은 모든
_____에게 _____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큰 기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 오늘날 변질된 목회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바울이 핍박자에서 열정적인 전도자로, 증오심이 가득하던 자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고전 9:23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오히려 미워했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고후 5:17

바울은 복음에 인생을 걸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빌 1:20~21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롬 1:17 / 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으로 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은 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문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더욱더 열정적인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전도를 통해 그의 삶은 모험과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롬 10:12~13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의 을 부르는 자는 을 받으리라

행 2:21

※ 복음에 인생을 걸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를 표시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질 문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아니오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전심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의 연구

⁴³⁾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⁴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행전 4:13~14)

고위 종교관원들,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사도행전 4:2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구걸하고 있던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나면서 못 걷게 된”(행 3:2) 사십 세 가량의 이 남자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걸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이 때 믿게 된 남자의 수가 오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4절) 이 사건은 종교관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종교관원들은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기로 했습니다.(3절)

종교인들의 연구가 시작되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5~6절) 주요 종교인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를 고친 일에 대해 심문하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10~12절) 사실상 베드로는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그들을 고소한 셈이었지만 종교관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심문을 계속했습니다. 심문을 통해 종교관원들이 알아낸 사실은 무엇입니까?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라다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뜻밖에 너무나 담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13절) 종교관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거나 감금하고 심지어 처형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들 앞에서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천 명의 개종자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처지는 더욱더 위험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종교관원들은 담대한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에 내심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다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13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들 중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관원들은 사도들이 무식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무식한 이 사람들이 것처럼 설득력 있는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었는지 종교관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귀신 들렸든지 정상적이든지, 무신론자든지 구도자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병든 영혼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종교인들의 연구결과

마침내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13절) 그들은 사도들의 대답을 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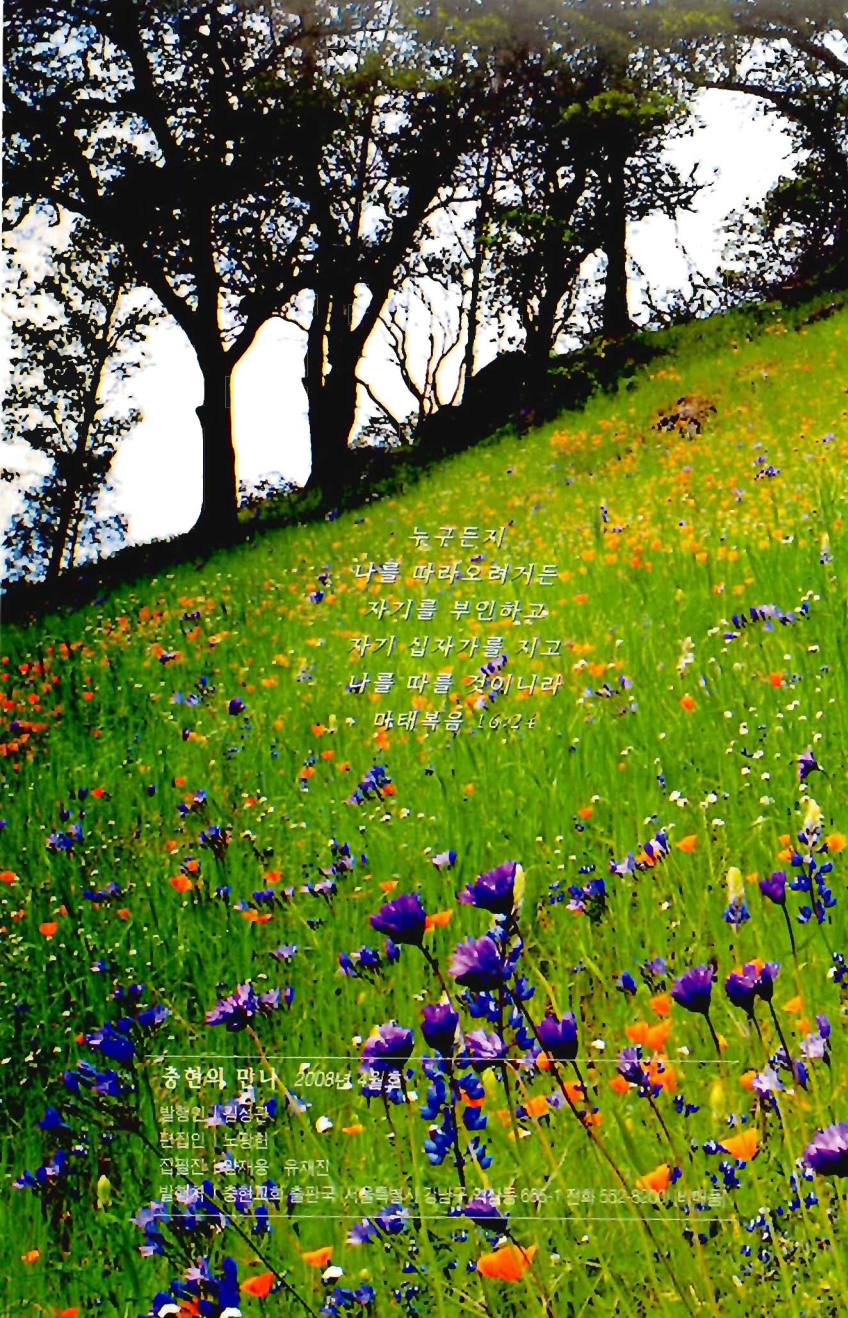
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졌습니다.(14절) 종교관원들은 하나님의 손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곧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한 그들이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관원들은 여전히 그들을 인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지도자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16절)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단순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

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전 1:18~3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식하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종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행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십시오. 아멘.



누군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4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안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6-1 전화 552-3000 | 비매품